

[아마존] FTC, 소비자 환불 상한 51 달러→200 달러로 인상 -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로 리테일 비용 부담 재부각



26.09.18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FTC, 아마존 환불 상한 51 달러→200 달러로 인상
- 환불 대상 소비자 범위도 확대, 총 규모는 미공개
- 북미 리테일 비용 부담 재부각, AWS 비중 커 영향 제한적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에 대한 기존 명령을 개정해 더 많은 소비자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고, 1인당 최대 환불 지급액을 51 달러에서 200 달러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속보에는 총 환불 규모나 대상 소비자 수, 개정 배경이 된 구체적 사건 경위는 담기지 않아 해당 부분은 본 입력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로 남겨둔다.

다만 방향성은 분명하다. 환불 자격 요건 완화와 상한액 확대는 아마존이 향후 지급해야 할 소비자 환불 총액이 늘어날 잠재 요인이라는 뜻이다. 직전 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주목한 지점 중 하나가 북미 리테일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전분기 43%에서 21%로 둔화되고 마진 개선폭이 30bp(0.3%포인트) 수준에 그쳤다는 점인데, 이런 규제 관련 비용이 일반관리비에 없다면 같은 방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전사 영업이익의 60%를 AWS(아마존웹서비스)가 만들어내는 이익 구조를 고려하면, 이번 조정이 연결 손익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가 측면에서는 AWS의 36%대 성장과 클라우드·AI 인프라 스토리가 밸류에이션을 주도해온 만큼, 이번 소비자보호 규제 건이 단독으로 주가 흐름을 바꿀 재료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리테일 부문 비용 구조에 대한 경계감을 다시 환기시키는 요인으로, 단기적으로는 소폭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총 환불 규모와 지급 일정이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이 비용이 3분기 실적에서 북미 부문 일반관리비 항목에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가이던스 대비 눈높이가 낮아진 3분기 영업이익 전망(22.5억~26.5억달러 범위, 중간값 기준 컨센서스 하회)에 추가 부담으로 겹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재무 요약 (I/B/E/S 컨센서스)

항목	FY Dec-24	FY Dec-25	FY Dec-26 (E)	FY Dec-27 (E)	FY Dec-28 (E)
매출 (Revenue)	637.96	716.92	828.69	948.42	1,100.36
↘ 증가율	10.99%	12.38%	15.59%	14.45%	16.02%
매출총이익	311.67	360.51	426.09	498.10	580.52
↘ 마진	48.85%	50.29%	51.42%	52.52%	52.76%
EBITDA	144.16	169.84	216.45	282.46	365.57
↘ 마진	22.60%	23.69%	26.12%	29.78%	33.22%
영업이익 (EBIT)	68.59	79.97	109.80	140.27	182.02
↘ 마진	10.75%	11.16%	13.25%	14.79%	16.54%
순이익	59.25	77.67	138.77	116.58	152.61
↘ 마진	9.29%	10.83%	16.75%	12.29%	13.87%
EPS	5.53	7.17	12.86	10.59	13.98
↘ 증가율	90.69%	29.66%	79.36%	-17.69%	32.10%
잉여현금흐름 (FCF)	32.88	7.70	-21.54	-26.25	28.27
P/E	39.7x	32.2x	19.1x	23.2x	17.6x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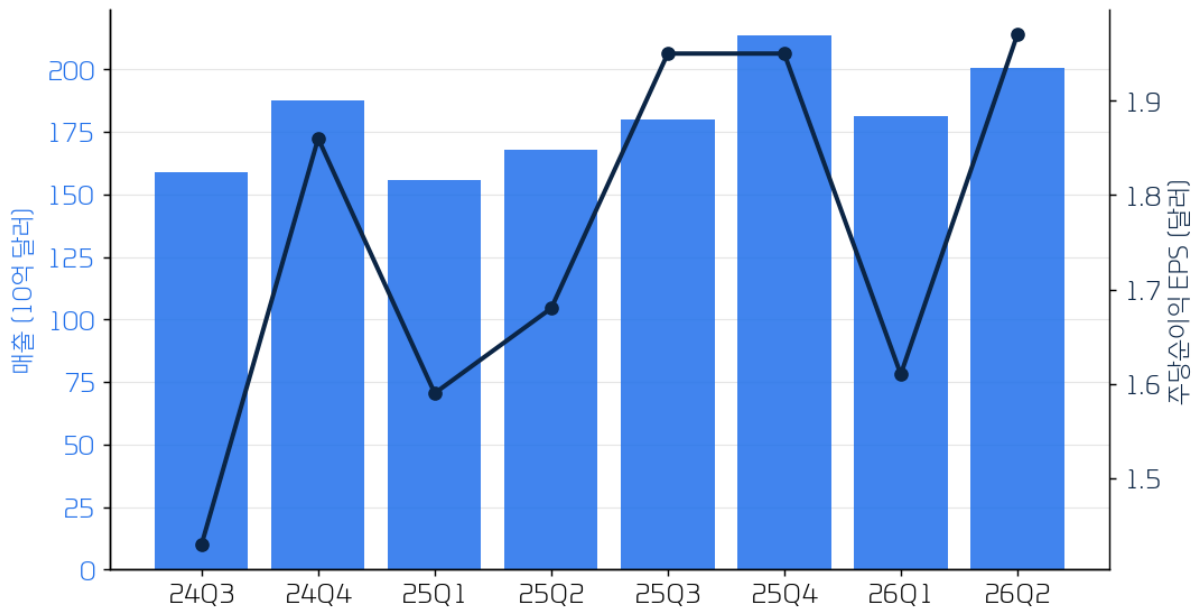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YoY, 단위는 십억 USD

참고 차트

AMZN 주가·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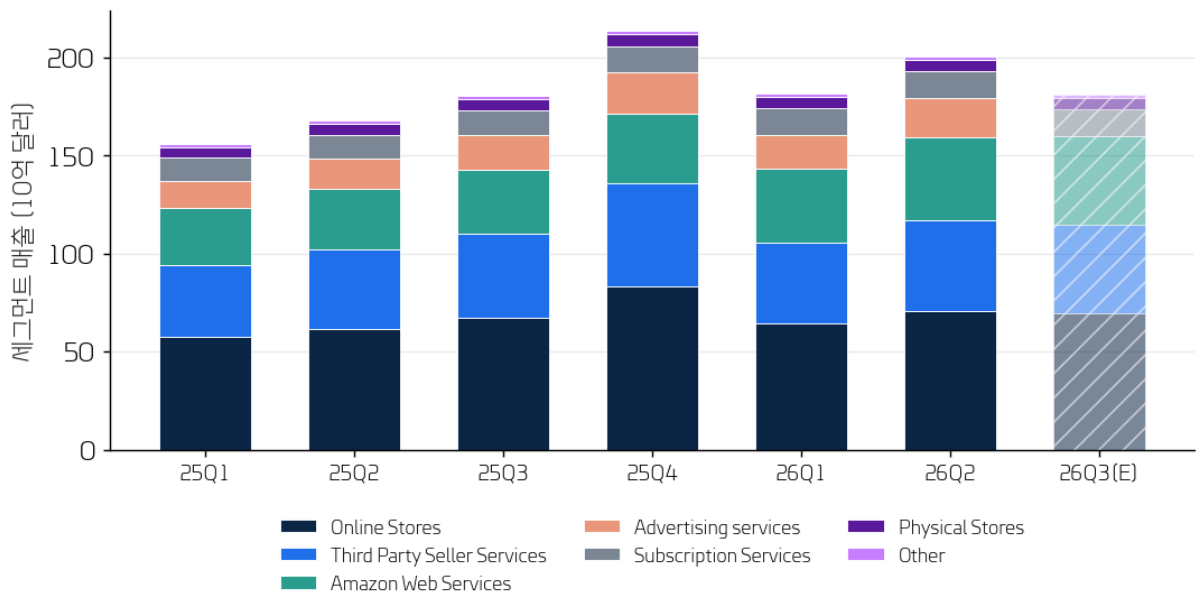


AMZN 분기 매출·주당순이익(EPS) 과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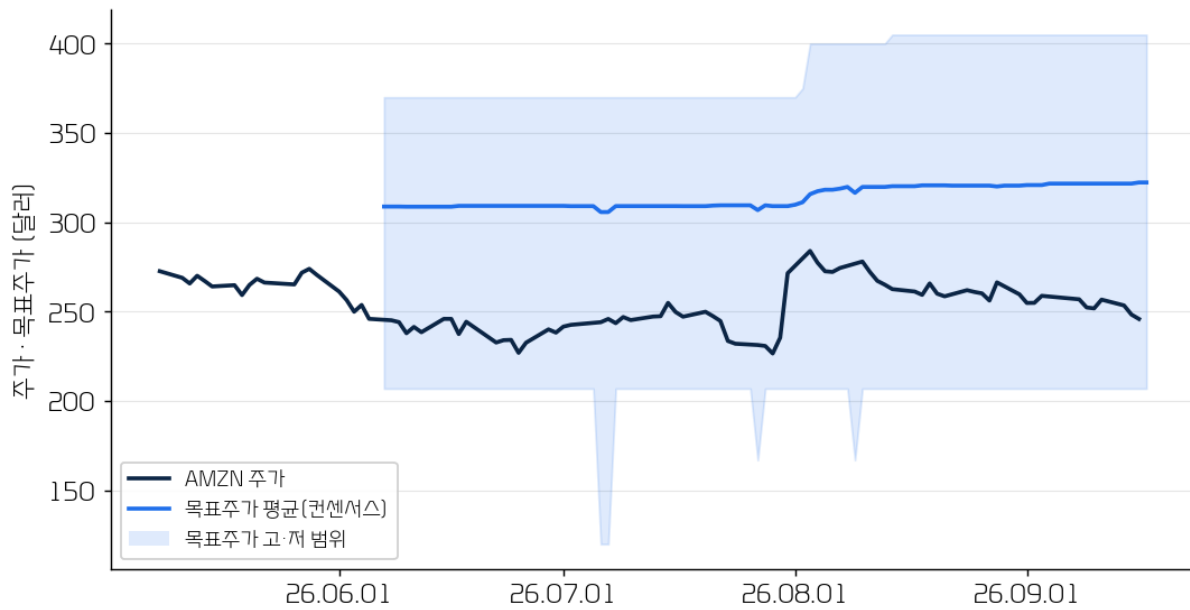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MZN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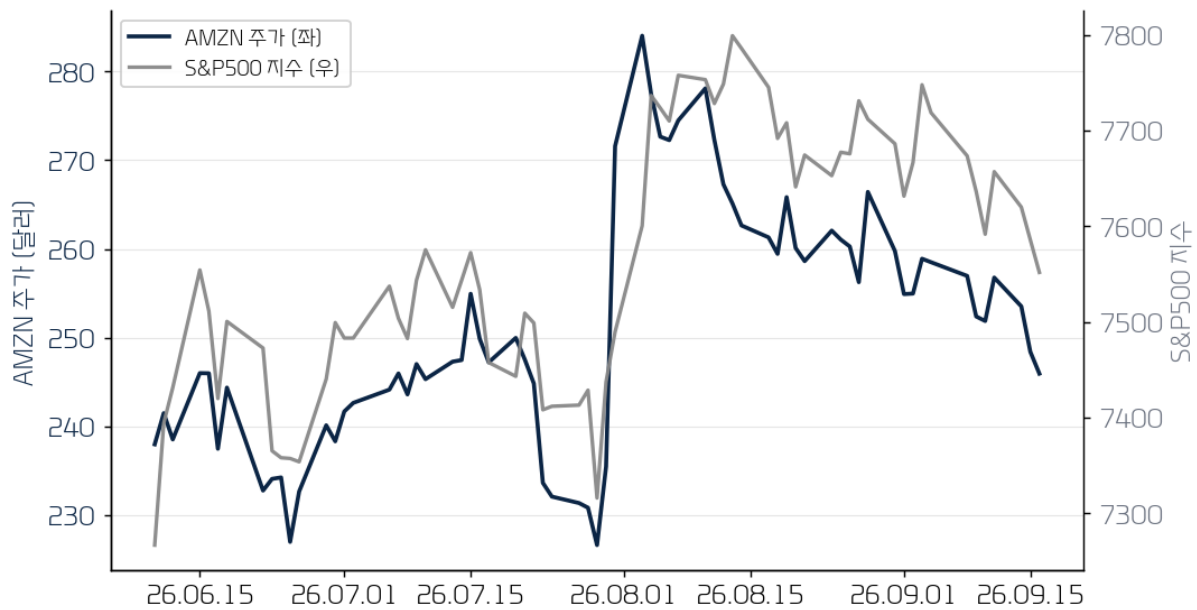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MZN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MZN 주가 vs S&P500 (최근 90 일)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